

# LS 증권 주간 Global ESG News

주간 ESG 뉴스 2026.05.29~2026.06.05

구분	시장 동향
Energy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주,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 추세 (2026.05.29, Bloomberg)</li> </ul> <p>호주 정부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기차 보급 가속화로 '25년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약 2% 감소. 호주는 1인당 배출량 기준 세계 최상위권 오염국으로 기후 목표 달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했으나 일부 해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국 태양광 기업들, 우주 태양광 에너지 개발 연합 출범 (2026.06.02, OilPrice.com)</li> </ul> <p>중국 태양광 제조업체는 국내 공급 과잉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고자 SNEC PV+ 컨퍼런스에서 '우주 태양광 에너지 개발 연합'을 출범. 1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 중이며, '50년 GW급 우주 태양광 발전소 건설을 장기 목표로 제시</p>
Govern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U, 반(反)그린워싱 규정 미도입 20개 회원국에 경고 (2026.06.02, ESG NEWS)</li> </ul> <p>EU 집행위원회는 '녹색전환을 위한 소비자 역량강화 지침'을 국내법으로 전환하지 않은 2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위반 절차 개시. 해당 지침은 모호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주장 및 라벨을 규제 대상으로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40년까지 온실가스 87% 감축 목표 발표 (2026.06.02, ESG NEWS)</li> </ul> <p>영국 노동당 정부는 1990년 대비 2040년까지 온실가스 87% 감축 목표를 발표. 에너지부 장관은 에너지 충격으로부터 가계와 기업의 재정을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은 청정 국산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라 언급하기도</p>
Corpora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MS, Avangrid와 140MW 미국 태양광 계약 체결 (2026.06.01, ESG Today)</li> </ul> <p>Microsoft는 Iberdrola의 미국 자회사 Avangrid와 전력 구매 계약 체결. 워싱턴주에 신규 조성되는 140MW 규모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전력을 MS가 공급 받을 예정. 이에 양사 간 미국 내 계약 용량은 500MW를 상회하게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JetBio, 브라질에 세계 최대 SAF 플랜트 건설 계획 (2026.06.02, Bloomberg)</li> </ul> <p>사모펀드 소유의 JetBio가 브라질에 세계 최대 SAF(지속가능항공유) 플랜트를 건설할 계획. 브라질의 저탄소 에탄올 원료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최대 254M 갤런 규모의 SAF 플랜트를 '27년 하반기 착공, '30년 생산 개시 목표</p>
Fund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덴마크 Akademikerpension, 지배구조·고평가 우려로 Space X 투자 제외 (2026.05.29, Reuters)</li> </ul> <p>덴마크 연기금 Akademikerpension은 SpaceX의 IPO를 앞두고 지배구조·고평가 우려로 포트폴리오 투자 제외 목록에 편입. 일론 머스크에 80% 이상의 의결권이 집중됨에 따른 이사회 감독 기능 부재 등 지배구조 결함과 \$1T를 상회하는 기업가치의 정당성 부족이 근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웨덴 AP2, 외부 운용사 대상 인권·산림벌채·기후 요건 강화 (2026.05.29, IPE)</li> </ul> <p>스웨덴 연기금 AP2는 외부 사모펀드 운용사 요건에 '기후 관련 업무' 항목을 추가하고, 인권·산림벌채에 대한 평가를 새롭게 도입. 이는 '25년 비상장 자산의 탄소 발자국이 늘어나자 운용사 계약 단계부터 ESG 요건을 강화해 기후 전환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는 취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국 Nest, 기후 특화 인프라 사모신용에 £200M 투자 (2026.06.02, Alternative Credit Investor)</li> </ul> <p>영국 연기금 Nest는 기후 특화 인프라 사모신용에 £200M를 투자. 지금은 초기 단계를 벗어나 검증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나 자본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벤처투자기업을 포함, 성장 단계의 산업·인프라 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할 예정. Nest 측은 해당 투자가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지원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 밝힘</p>

자료: 언론보도, LS 증권 리서치센터

###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투자전략팀).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